

“통도사 정보박물관의 현황과 운영” 토론문

이용진 (동국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범하 관장님의 「통도사 정보박물관의 현황과 운영」은 통도사 정보박물관에 관한 내용을 건립목적과 시설, 조직과 운영, 기능과 역할 등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도사 정보박물관이 직면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도 제시하고 있어 다른 내용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사찰의 정보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통도사 정보박물관의 사례를 보면서 정보박물관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 정보박물관의 운영

통도사 정보박물관은 1999년 현재의 박물관을 개관할 때 박물관이 지향하는 성격에 맞게 건물을 설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식으로 쾌불을 걸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동안 쾌불의 조사와 설치에 들던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전시공간과 수장고의 배치도 적절하게 하여 두 가지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재질에 따라 유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수장고를 만든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반면 현재 개관중인 정보박물관이나 개관 예정인 정보박물관은 박물관의 성격과 유물에 대한 조사 없이 박물관을 건립 전시와 보존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시실의 경우 진열장의 높이가 낮거나 폭이 좁아 전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수장고의 경우 유물의 크기나 재질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유물에 대한 조사와 전시계획 없이 박물관을 신축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박물관의 경우 이러한 것을 고려하고 박물관을 건립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 측에서 건립이전에 유물에 대한 조사와 전시유물을 선정하고, 정보박물관의 성격에 맞게 설계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재청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는 개선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시에 있어서 통도사 정보박물관은 사찰 박물관의 성격에 맞는 전시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찰박물관이 단순히 사찰에 소속된 박

물관의 기능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박물관에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월정사 정보박물관과 수덕사 근역정보관에서 전시했던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전」과 「한국의 佛腹藏전」은 대규모의 전시는 아니었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에 관련된 전시를 한다면 지역의 문화중심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도사 정보박물관에서는 특별전과 함께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정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는 지방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이지만 전국에서 여기에 참가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저명한 학자들도 초청하여 학술대회의 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정보박물관은 통도사와 월정사 정보박물관에 그치고 있는데, 이 같은 학술대회의 개최는 박물관의 홍보와 함께 학문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어 큰 의의가 있습니다.

2. 문제점과 개선책

박물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찰박물관은 사찰에서 배정하는 예산에 의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범하 관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는 유물의 보존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건립단계에는 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립 후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없어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찰박물관이 전문인력을 두지 않으려는 부분도 결국에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입장료와 사찰 측의 지원만으로는 박물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범하 관장님이 제시하신 정부의 지원과 사찰 관람료의 일부를 문화재 보호와 문화포교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박물관에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보박물관에서도 자체 수입을 얻을 만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범하 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 통도사 정보박물관에서 시행했던 사례들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과 더불어 사찰 박물관이 겪는 어려움의 하나는 전문 인력의 확보입니다. 통도사와 일부 사찰 박물관을 제외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연구원이 없거나 최소의 인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찰박물관에서는 박물관으로 등록만 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이직률이 높아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혼란만 가중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원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찰 박물관이 대부분 서울이 아닌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적절한 대우를 하고, 연구원을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관련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로 채용하면 조그만 성과는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적절한 대우는 연구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하여 성보박물관 연구원들의 임금을 경력, 학력을 고려하여 공식적으로 임금체계를 세웠으면 합니다. 범하 관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성보박물관 관련 세미나 등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입니다. 그러기에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현황과 운영을 중심으로 성보박물관이 당면한 문제들을 다시 언급하였고, 이 자리를 통해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이 관련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합니다.